

육아정책 소식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2월 28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는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동안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긴급돌봄 지원 내용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교 대상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 실시 ·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고 시설환경에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 실행 ·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협력하여 참여하고 일과 시간에 준하여 17시까지 운영하며, 학급당 10명 이내로 배치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를 통해 긴급보육·돌봄 실시 ·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 실시하며,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진행
고용노동부	·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 ·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 ·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1000점) 부여할 계획
여성가족부	·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 · 부모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 ·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시 가산점(5점) 부여

보건복지부,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3년간(16.11월~19.11월) 학대 피해아동이 시설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에 관해 1월 13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총 3,139건의 사

례 중, 학대행위자에게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 680건은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이 필요한 사례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만약 이러한 방문 시도에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재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에도 “가정복귀 강화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정복귀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 이수율 의무화하는 등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왔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22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수유시설 검색 누리집(sooyusil.com)에 등록되어 내·외부인이 이용 가능한 전국 2,841개 수유시설을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원들의 방문 및 시설관리자 면접을 통해 이용 현황, 환경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841개소 중 아바도 이용 가능한 가족수유실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2,283개소(80.4%)임.
-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1명 이상인 곳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727개소(25.6%)임.
- 수유시설 관리 주기는 대부분(2,800개소, 98.6%) 1일 1회 이상이며, 1일 2회 이상도 2,480개소(87.3%)임.
- 수유실 필수 물품인 쇼파는 2,750개소(96.8%)에, 기저귀교환대는 2,676개소(94.2%)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손소독제(1,454개소, 51.2%)와 탁자(1,349개소, 47.5%)는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음.
- 수유실 내 비치 물품의 청결상태 및 바닥 오염도는 대부분 적정(99.4%)한 것으로 조사됨.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유시설 관리 표준 지침이 정착되어 모유 수유 및 육아활동 편의가 증진되는 한편, 수유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동안은 인증과 재인증 시에만 기업의 지표 달성 수준을 파악했으나, 본 서비스를 통해 상시적으로 진단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www.ffsb.kr)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지표별 점수를 확인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으며,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제고오디는 환류보고서를 통해 가족친화 수준, 지표별 강점과 약점, 동종 업계와의 비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류보고서에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는 기업별로 ‘주요지

표 목표관리제' 관리 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이용률을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의 자문 및 우수기업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계획을 설립할 수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 연계로 기업이 인증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 변동 추이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월 11일(화)부터 3월 3일(화)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였다.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활동의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①미혼모/부·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이며,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으로, 단독 혹은 연합의 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본 공모의 결과는 3월 13일(금) 발표되며, 선정 단체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윤호식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2일, 2019년 전체 육아휴직자가 105,165명으로 2018년보다 6% 증가했으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후에 처음이며, 이는 2018년(17,665명)에 비해 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역시 9,796명으로, 2018년보다 48.2% 증가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도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역시 5,660명으로 2018년보다 48.2% 증가하였고, 이 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보다 34.9%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화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왔던 것의 결과라고 하였다. 2020년도 육아휴직 지원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육아휴직 지원 제도 개선 내용 〉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2020년 2월 시행)
-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지급 개선(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 추진(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사업주 지원
제도 개선

-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지급(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2020년 1월 시행)